

[1~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추론 연습)

하이데거는 '어떤 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최근류(最近類)와 종차(種差)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'는 말을 옳다고 말한다. 우리가 인간은 '이성적 동물'이라고 말할 경우 동물이 최근류이며 '이성을 갖는다는 것'이 종차에 해당된다. 즉 동물은 인간이 속하는 가장 가까운 유에 속하고 '이성을 갖는다는 것'은 인간이라는 종만이 갖는 특수한 종차를 표현하는 것이다. 그러나 존재는 다른 개념들과는 달리 최근류와 종차를 갖지 않는다. 왜냐하면 존재를 포괄하는 최근류가 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, 종차로 가능할 수 있는 어떠한 개념도 존재라는 개념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. 존재라는 개념을 내포하지 않는 개념은 무(無)밖에 없으나, 무는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종차가 될 수 없다. 또한 어떤 것을 정의하려 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'...이다'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를 정의할 경우에 우리는 정의되어야 할 말을 정의하는 말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되며, 이는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.

존재는 어떠한 존재자가 '...이다'라든가 '있다'는 식으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는 것이다. 즉 존재는 존재자가 무엇이고 그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이해될 수 있는 기반이다. 따라서 존재는 존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정의될 수 없으며, 고대 존재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전통 논리학의 정의는 어떤 한계 내에서는 일정한 정당성을 갖지만 존재에는 적용될 수 없다.

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는 존재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
④ '존재는 정의될 수 없다'는 사실로부터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은 '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'는 사실뿐이다. 존재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.

* 유(類): 어떤 개념의 외연(外延)이 다른 개념의 외연보다 크고 그것을 포괄할 경우, 전자를 후자에 대하여 이르는 말. 예를 들면, 소나무·매화나무 따위의 종개념(種概念)에 대하여 식물이 이에 해당한다.

* 종차(種差): 한 유개념 속의 어떤 종개념이 다른 종개념과 구별되는 요소. 이를테면 동물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이성적이며 언어를 가졌다는 차이 따위이다.

1.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존재 개념은 모든 존재자들의 유가 될 수 있다.
- ② 존재하는 모든 최근류의 개수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의 개수만큼 존재한다.
- ③ 어떤 개념의 최근류는 동시에 다른 개념의 최근류가 될 수 있다.
- ④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동일한 최근류를 공유할 때, A와 B는 반드시 상이한 종차를 갖는다.
- ⑤ 존재 개념은 무(無) 개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.

2. ④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존재와 존재자는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- ② 존재는 모든 존재자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므로 항상 무(無) 개념과 대립된다.
- ③ 존재는 전통 논리학의 방식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고 이는 모든 존재자들의 종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- ④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존재 개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는 없다.
- ⑤ 존재자는 존재를 통해 정의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존재는 존재자를 통해 의미가 드러난다.

3. <보기>를 바탕으로 밑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존재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항상 부조리에 빠지게 된다. 왜냐하면 우리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이다(est)라는 단어로 출발하지 않고서는 어떤 낱말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 존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'이다'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, 그렇게 되면 정의 속에 정의 되어야 할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. (파스칼, 『팡세와 소품집』)

- ① 우리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'이다'라는 단어로부터 낱말을 정의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자들은 '존재'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② 존재 개념을 '이다'를 통해 정의내릴 경우, 다시 '이다'의 정의는 존재 개념이 의존하는 순환 오류에 빠지게 된다.
- ③ 어떤 개념의 정의가 '이다'라는 단어에 의존한다는 것은 최근류와 종차 개념도 '이다'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.
- ④ 무(無) 개념은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'이다'를 통해 정의되는 개념이 될 수 없다.
- ⑤ 존재가 존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'이다'를 사용하지 않고 정의내려야 한다.

지문 출처: 박찬국, 하이데거의 『존재와 시간』 강독, 서론_1장_존재물음의 필요성, 구조 및 우위(23-24pg)